

# 살아 있는 게 제일 큰 희망

『라틴어 수업』  
한동일 바티칸 변호사

*Dum vita est,  
spes est*



좋은 책은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한동일 작가는 그것이 '책의 힘'이라고 했다. 공부하는 노동자이자 우리 모두의 라틴어 스승인 한동일 작가의 책을 읽으면 비루한 일상에 얹어 잉태되고 삶이 비로소 존엄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힘을 가진 책이기 때문이다.

글 이재영 사진 최충식 장소제공 디어라이프



### 책 읽는 이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라틴어 수업』이 100쇄를 찍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렵게 바티칸 변호사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 했던 수업이었어요. 어찌다 보니 소문이 나서 가장 큰 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 수업이 됐죠. 6년을 했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매듭짓는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었어요. 처음 책을 출간할 때만 해도 100쇄를 찍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해주시니 감사하죠.

### 독자들이 진짜 강의를 듣는 거 같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강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도움이 컸어요. 수업을 하고 나면 매 시간 수업 내용을 정리해 메일로 보내주고, 그 안에서 질문과 답이 오갔거든요. 질문이 생각을 키우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은 늘 환영이었죠. 저는 항상 설득하려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했어요. 단순하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감동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인지 학생들도 어려운 라틴어 수업을 즐겁게 들어줬고 그게 책에도 잘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 당시 수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요. 24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240명으로 인원이 늘고, 학생뿐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와서 들었다지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글쎄요. 『라틴어 수업』이 100쇄를 찍을 거라고 생각지 못한 것처럼 수업도 그랬어요. '어려운 라틴어를 누가 듣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큰 강의실이 가득 차는 인기 수

업이 됐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배울 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틴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언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해줬죠.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라틴어를 알려주진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하는데요. 처음 한 달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공부는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씩 마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그 힘에 의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니 참아라. 인생이 맛집 찾듯이 남이 찾아 놓은 걸 흉내 내며 살 수는 없으니 한번 따라와봐라. 믿고 그럼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에게도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 가르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였는지요?

로마에 있을 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유학생들을 자주 도왔어요. 라틴어가 서양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철학 전공자나 예술 전공자들의 책을 요약해주고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줬죠. 제 공부도 바빴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시간을 쪼개가며 남을 위해 한 일인데 고스란히 제 것이 되더라고요. 역사, 철학, 음악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된 거죠.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가르치는 건 아주 큰 배움의 기회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기한 게 정말 숨이 턱까지 차 죽을 거 같을 때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살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통해 제가 더 위로 받고 더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의 결핍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죠. 타인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던 시간이 제 삶의 태도도 바꿔 놓았죠.

**올 여름 『한동일의 공부법』을 출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공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나요?**

그렇죠. 어린 학생뿐 아니라 여전히 고민하고 방황하는 중년까지 왜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과연 공부란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숨이 헉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하면서 심호흡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끄집어 내 알려줬죠. 모든 사람이 공부해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공부에만 매달리고 전부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공부의 신이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해요. 공부도 신급으로 해야 하고, 얼굴도 여신처럼 예뻐야 하면 인간들은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이 숨쉴 수 있을까요?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책에 쓰신 ‘여기 우리 가운데 경쟁자는 없다’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팀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이걸 알았으면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앞뒤 없이 공부만 한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가님 수업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버티라. 버티라고 말해줘요.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 강연을 했는데 그때 말해줬어요. 지금 내 모습이 평생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제 삶이 그렇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암담했어요. 공부는 하는데 과연 이룰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요. 오늘날 100쇄를 찍은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대단한 삶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삶이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살아나가는 삶이 진짜 대단한 거죠. 버티세요. 살아 있는 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66

학생들이 이걸 알았으면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앞뒤 없이 공부만 한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99

**한동일 바티칸 변호사**

한국인 최초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다. 라틴어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법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라틴어 강의를 엮은 『라틴어 수업』은 100쇄를 찍으며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됐다. 『로마법 수업』, 『한동일의 공부법』, 『법으로 읽는 유럽사』, 『그래도 꿈꿀 권리』, 『카르페 라틴어 한국어 사전』 등의 저서가 있다.



**살아 있는 게 제일 큰 희망이라는 말에 위로가 됩니다.**

그랬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야기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한번도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을 위로했죠. 제 3자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다독인 거예요. 그 안에서 각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건져내 스스로를 위로한 겁니다. 발 견한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라틴어에는 지혜가 녹아 있다고 하는데요.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라틴어 경구가 있을까요?**

Nemo dat quod non habet. ‘내가 가지지 않은 건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의 이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본인이 경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걸 물려주겠습니까? 물질적인 건 다 날아가버리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넘길 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정서의

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건강한 정서로 살아갈 힘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야겠죠. 잠깐 멈춘 이 시기에 주기 위해 어떤 걸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길 위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 길에 어렵고 힘든 감정은 내일로 잠시 미루기도 하면서요. 가장 대단한 건 지금 여기 살아 있는 거예요.”

한동일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픈 우리를 생각했다. 어차피 미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불투명하므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고 살아 있어 다행이었다. 산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니 희망 속에 내일을 기대해보기로 했다. 이번엔 책을 읽지 않았는데도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책만큼 값진 존재였다. 🌧